

해리스 판정승, 트레이딩 기회.

앞으로 대선까지 D-55

- 첫 TV토론에 대한 평가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워...
-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난전 가능성. 후보별 산업 / 업종별 이해득실 뚜렷
- 단기 트레이딩 기회(해리스 우세),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의문 부호를 지워낸 해리스 부통령, 견조한 지지율 유지해 나갈 전망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오전 10시에 미국 대선 TV토론이 있었다.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불리할 수 있었던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문제 등의 주제에서 능숙하게 대처해냈다.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구체적인 정책이 없거나, 토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을 피한다는 의혹을 지워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본다. 토론 후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시청자가 해리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토론의 결과가 해리스 후보의 선전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1) 바이든과 힐러리가 고전했던 토론 상대인 트럼프를 상대로 여유로운 자세로 대처하며 본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시청자들에게 어필했고, 2) 외부 조언이 불가능한 토론 조건에서 본인의 정책을 조리있게 설명하며 정책적 철학에 대한 자질 부족으로 언론을 피한다는 우려를 씻어냈으며 3) 대중들에게 낯것으로 노출된 첫 TV토론에서 기대이상의 선전을 하면서 중도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어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리스의 승리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책 차별점과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토론 직후 여론은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으나, 대선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이후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TV토론 직전에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회복세가 나타났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해리스 후보를 앞서는 등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역전되기도 하며 초박빙 양상이었다. 트럼프 지지층 결집과 함께 민주당 지지층 외에는 해리스 후보의 인지도 부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해리스 후보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된 것이다.

TV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졸전을 보이며 무너진 것이 아니고, 주별 선거인단 제도 특성상 전체 미국의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Swing States의 표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이 상대 표심을 의식하여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 해리스는 프래킹(세일 가스를 채취하기 위한 수압파쇄 공법)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와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를 두고 해리스가 기존의 입장과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을 번복하였다고 공격받고 있으며, 토론 중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당선되는 순간 펜실베이니아의 프래킹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 경합주로 평가되는 만큼 해리스의 친환경 정책의 모호함에 대한 공방전이 대선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또한 이번 토론에서 대두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서의 모호한 태도, 지정학적 문제, 인플레이션과 이민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이슈들을 능숙하게 회피하거나 본인은 바이든이 아니라는 스탠스로 방어한 바 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서 본인의 차별성을 어필하거나 모호함을 지켜내는 것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자간 난전이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도 역시 낙태나 이민자들의 애완동물 섭취 논란, 마르크스주의자 등 논란이 있을만한 발언,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들을 남발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과 사회자들마저 어이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또한 순간적으로 감정적이거나 흥분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해리스 부통령의 차분했던 토론 태도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는 토론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해리스쪽으로 기울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반면, 이러한 토론 양상을 트럼프의 지지율 상실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2016년에도, 2020년에도 논란이 될만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대선 토론을 난전으로 이어갔던 이력이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2년안에 사라질 것이다”, “당선 직후 프래킹을 금지시킬 것이다” 등 극단적으로 나타났는데,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적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포기하고 상대후보의 당선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이민자들로 인한 치안 문제나,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등으로 발생하는 공포심을 과장된 표현을 통해 극대화함으로써 중도층이 집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주저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해리스 측은 트럼프 후보의 신뢰할 수 없는 발언과 1월 6일 국회 난입, 범죄자 이미지를 부각하며 Shy Trump 지지층을 더 Shy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본다. 이미지 측면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트럼프측은 해리스 후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들이 노출될수록 비방을 이어가며 대선 후반 국면이 될수록 토론을 난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선거 이벤트, 지지율 등락에 따른 산업 / 업종별 이해득실 가능

단기 트레이딩 기회, 추세 변화에는 제한적일 것

국내 기업들과 KOSPI 전체의 단기적 변동성은 트럼프 지지율 상승 시 확대될 수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시나리오가 CHIPS, IRA 법안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위해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의 사업적 불확실성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바이든 & 해리스 행정부와 트럼프 집권 시 관세와 같은 글로벌 교역 환경과 대중국 규제 방법에 대한 변화 가능성 역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 변수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따른 규제에 대해 양측의 기본적 견해가 다르지 않으며, CHIPS, IRA 법안을 의회 동의 없이 쉽게 폐지하기 어려운 점, 해당 법안의 수혜를 받는 주요 지역이 테네시, 켄터키, 네바다 등 공화당 지지지역이라는 점, 만약 혜택이 제한되더라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관세장벽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장기적 산업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우세 시 은행, 인프라, 방산, 카지노, 부동산 등 업종 수혜 가능할 것이다. 해리스 우세 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국 직접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의 연속성 기대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 대선 변수와 지지율 등락에 따른 이해 득실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 수급적 변화는 업종별 엇갈린 등락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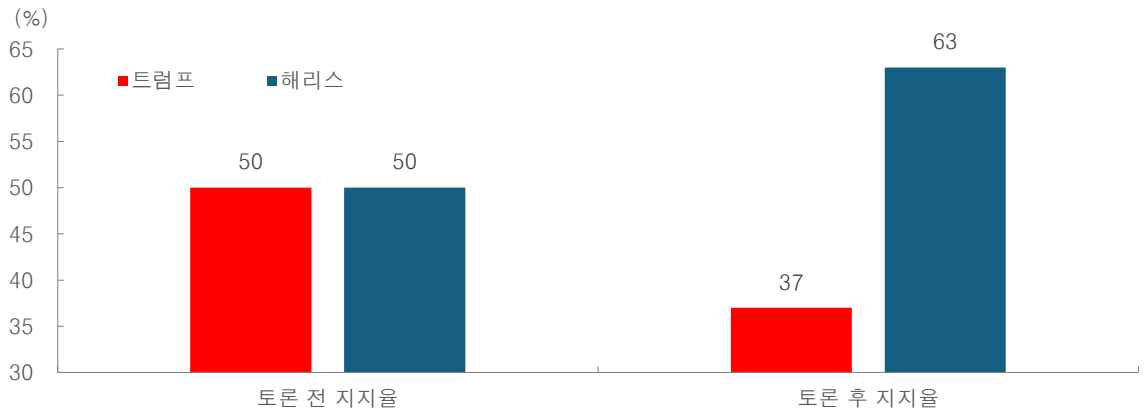
하지만, 추세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국내외 정치적 이벤트/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를 결정한 적은 없다. 정책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변수 자체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선 변수로 인해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산업/업종이 있다면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9월 10일 미국 대선후보 토론 의제 별 발언 및 주장 내용

주제	카말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경제 및 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및 소기업 지원 확대 - 아동 세액 공제 및 창업 세금 공제 - 트럼프의 부자 중심 세금 감면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 - 인플레이션 해결 계획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악화 비판
이민 및 국경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조직 단속 및 국경 보안 강화 - 트럼프의 이민 문제 해결 실패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 민주당의 국경 개방이 범죄자 유입 초래 주장
낙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oe v. Wade</i> 복원 - 여성의 낙태 권리 보호 - 트럼프의 낙태 금지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oe v. Wade</i> 폐지 성과 - 낙태 문제는 주 정부에서 결정 - 제한적 낙태 예외 허용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원 강조 - 트럼프의 독재자 지지 비판 - 이스라엘 방어 및 두 국가 해법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 종결 약속 - 이란 테러 자금 문제 해결 - 해리스의 외교 정책 비판
민주주의, 1월 6일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가 1월 6일 폭동 선동 - 트럼프의 민주주의 훼손 경고 - 법과 질서 수호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동 책임 부인 - 사건 책임이 낸시 펠로시에게 있다고 주장 - 선거 부정 주장 지속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ACA) 확대 - 의료비 및 약값 인하 - 트럼프의 의료 정책 부재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 비효율성 비판 - 더 나은 대안 마련 약속 - 구체적 계획은 미발표
기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 실재 위협 강조 - 청정 에너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트럼프의 기후 변화 부정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 회의론 - 청정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해롭다고 주장 - 석유 및 가스 산업 보호 강조
인종 및 정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의 인종 갈등 조장 비판 - 모든 미국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음 - 자신이 경제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했다고 주장
정권 이양, 선거의 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선거 결과 인정 - 트럼프의 민주주의 위협 경고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선거 부정 주장 지속 - 2024년 선거 부정 방지 법적 조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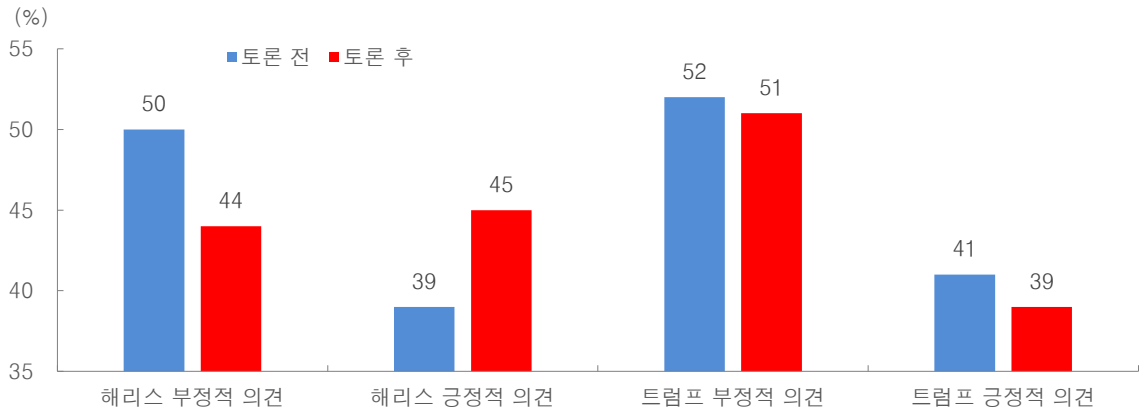
자료: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TV 토론은 해리스 판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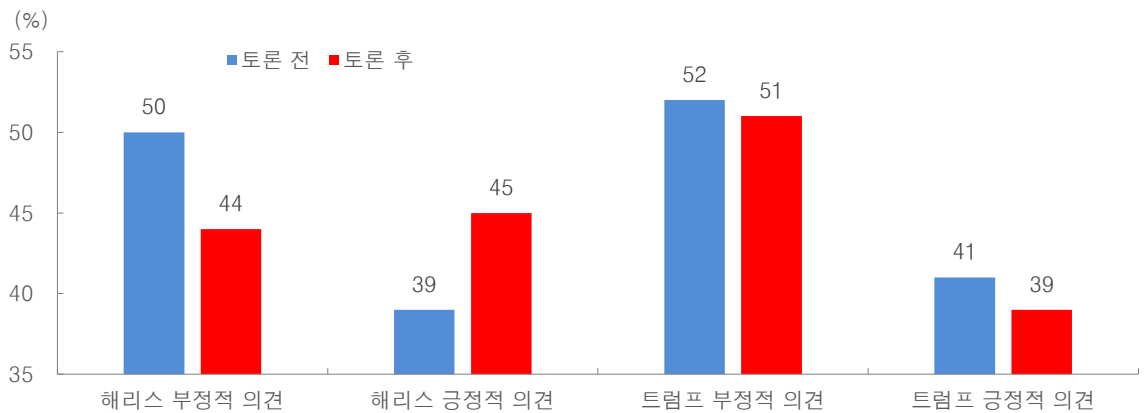
자료: CN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그렇다고 트럼프가 아주 못한 것은 아니야... 여전히 치열한 대선 레이스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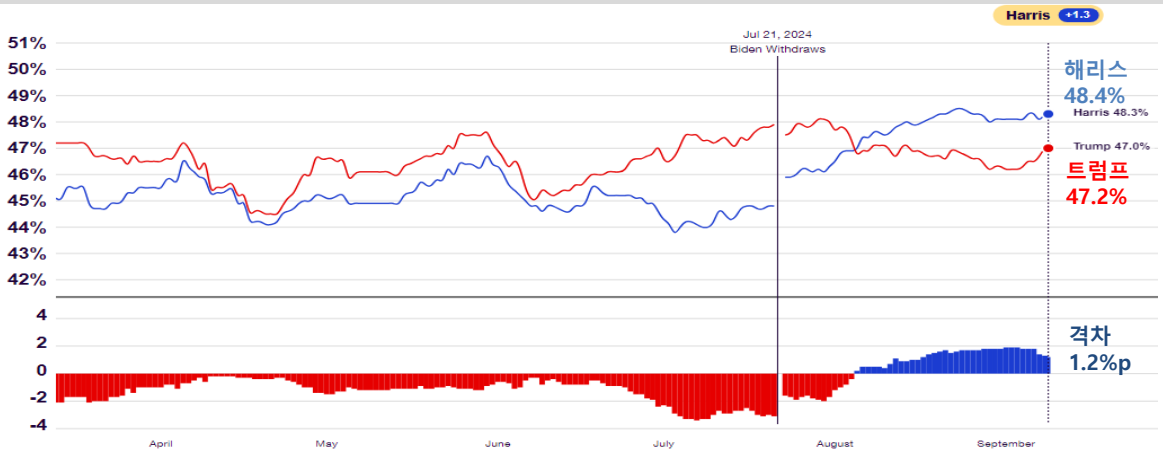
자료: CN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그렇다고 트럼프가 아주 못한 것은 아니야... 여전히 치열한 대선 레이스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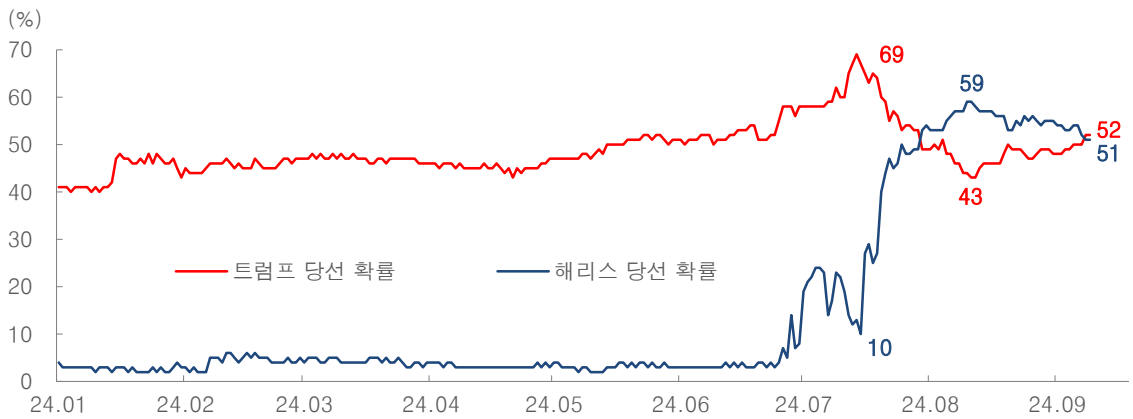
자료: CN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해리스 지지율 역전 이후 지지율 격차 1.2%p로 축소. 해리스 정체, 트럼프 상승



자료: RealClear Politi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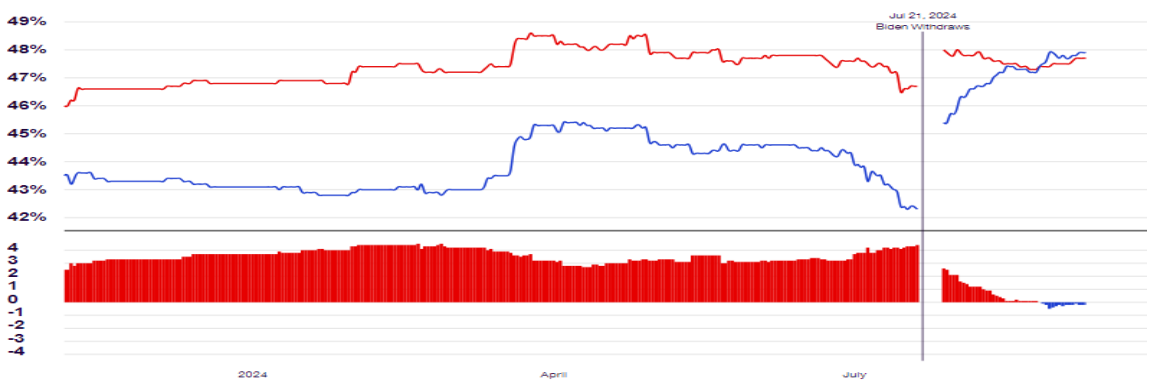
그림 6. 트럼프 당선 확률 52%로 해리스를 1%p 차이로 재역전



자료: RealClear Politi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93개 선거인단이 걸린 Battle Ground 에서 초박빙의 지지율 격차

Top Battlegrounds: Trump vs. H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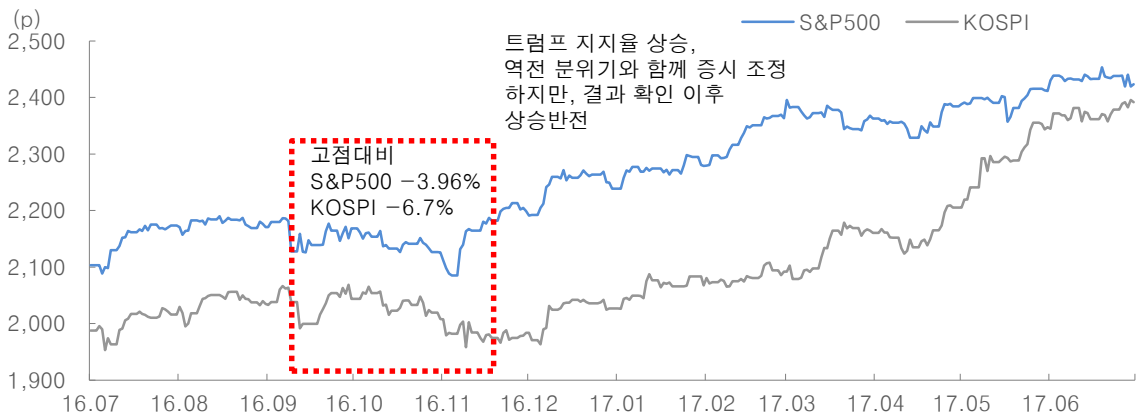
자료: RealClear Politi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트럼프와 바이든/해리스 정책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 산업/업종별 이해득실 뚜렷

ABB (Anything But Biden)	트럼프	VS	바이든
통상 및 경제 정책	IRA 폐지 IPEF 폐지 화석 에너지 생산 확대		바이든노믹스 IRA CHIPS ACT
대중국 견제 정책	디커플링		디리스팅
환경 정책	저비용·화석연료		친환경·신재생
군사 및 외교 정책	고립주의		개입주의
재정정책	감세·규제 완화		증세·규제 강화

자료: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2016년 트럼프 지지율 상승으로 증시 변동성 확대. 그러나 트럼프 당선 직후 상승추세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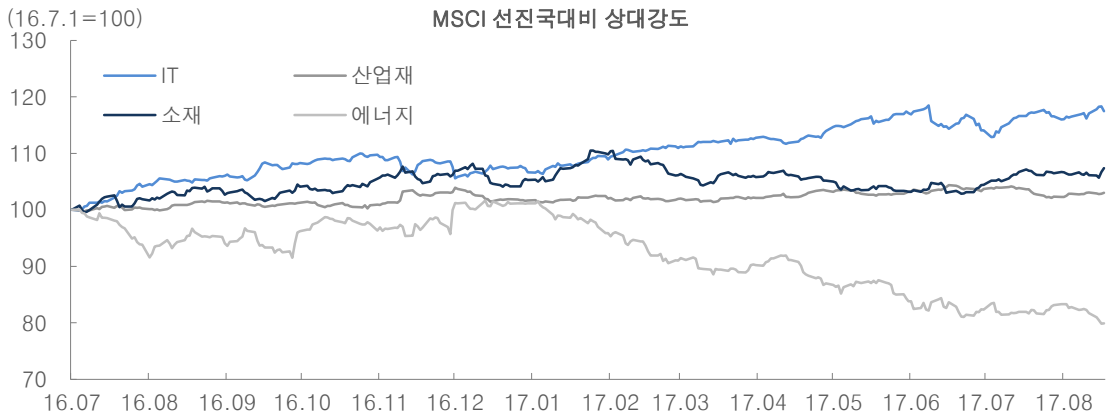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트럼프 대통령 취임 = 달러 강세를 예상했지만, 실제 달러화는 90p 하회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트럼프 대통령 = Old Economy 부활 기대로 10월, 11월 소재, 산업재, 에너지 강세, IT 부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에너지 약세, IT가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